

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

속담의 뜻

어릴 때의 버릇은 늙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수지야, 방 정리 좀 해. 여자는 정리를 잘해야 해.

나: 엄마, 지금은 바빠서 못 하지만 나중에 시집가면 정리를 잘 할 거예요.

가: **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**고 지금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시집가서도 못 해.

나: 괜찮아요. 정리 잘 하는 남편을 만나면 돼요.

(Kaynak: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41)

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

속담의 뜻

세상에 비밀은 없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경선 씨, 다음 달 결혼할 거라면서요? 축하해요.

나: 네? 어떻게 알았어요? 비밀인데...

가: **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**는 속담처럼 비밀이 어디 있어요?

나: 아직 직장에 말 안 했어요. 밥 한번 살 테니까 비밀 시켜 주세요.

(Kaynak: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53)

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

속담의 뜻

여러 번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된장찌개 끓일 줄 알아요?

나: 아니요. 몰라요. 민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요?

가: 아주 쉬어요.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넣은 후 끓이세요. 그리고 호박, 양파, 감자를 썰어서...

나: 잔깐만요. 잘 모르겠어요. **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** 직접 만드는 걸 봐야겠어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42)

무소식이 희소식

속담의 뜻

엇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말이니까 곧 기쁜 소식이나 마찬가지로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유학 간 딸하고 자주 연락하세요?

나: 요즘 통 소식이 없네요.

가: **무소식이 희소식**이라고 잘 있으니까 소식이 없을 거예요.

나: 그래도 너무 연락 없으니까 섭섭해요.

(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60)

시작이 반이다

속담의 뜻

시작만 해도 거의 반은 성공한 것과 같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와, 예쁜 비키니 수영복이네요. 이거 살 거예요?

나: 그럼요. 여름휴가 전까지 10kg 살 빼서 입으려고요.

가: 10kg 요? 결심이 대단하네요. 그런데 휴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뺄 수 있겠어요?

나: **‘시작이 반’**이라고 헬스클럽에 등록했으니까 5kg 뺀 거나 같아요.

(Kaynak: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60)

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

속담의 뜻

먼저 좋은 말로 해야 상대방도 좋은 말로 답한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! 너는 문제만 만드는 골칫덩이야!

나: 나는 너한테 불만 없어서 조용히 있는 줄 알아? 이 게으름방이야!

가: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좋은 말로 해. **‘그냥 좀 부지런해지면 좋겠다’** 이렇게.

나: **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**라는 속담도 몰라? 먼저 골칫덩어리라고 말한 사람은 너야.

(Kaynak: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53)